

# 옷의 힘

—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 —



09 장애인 고용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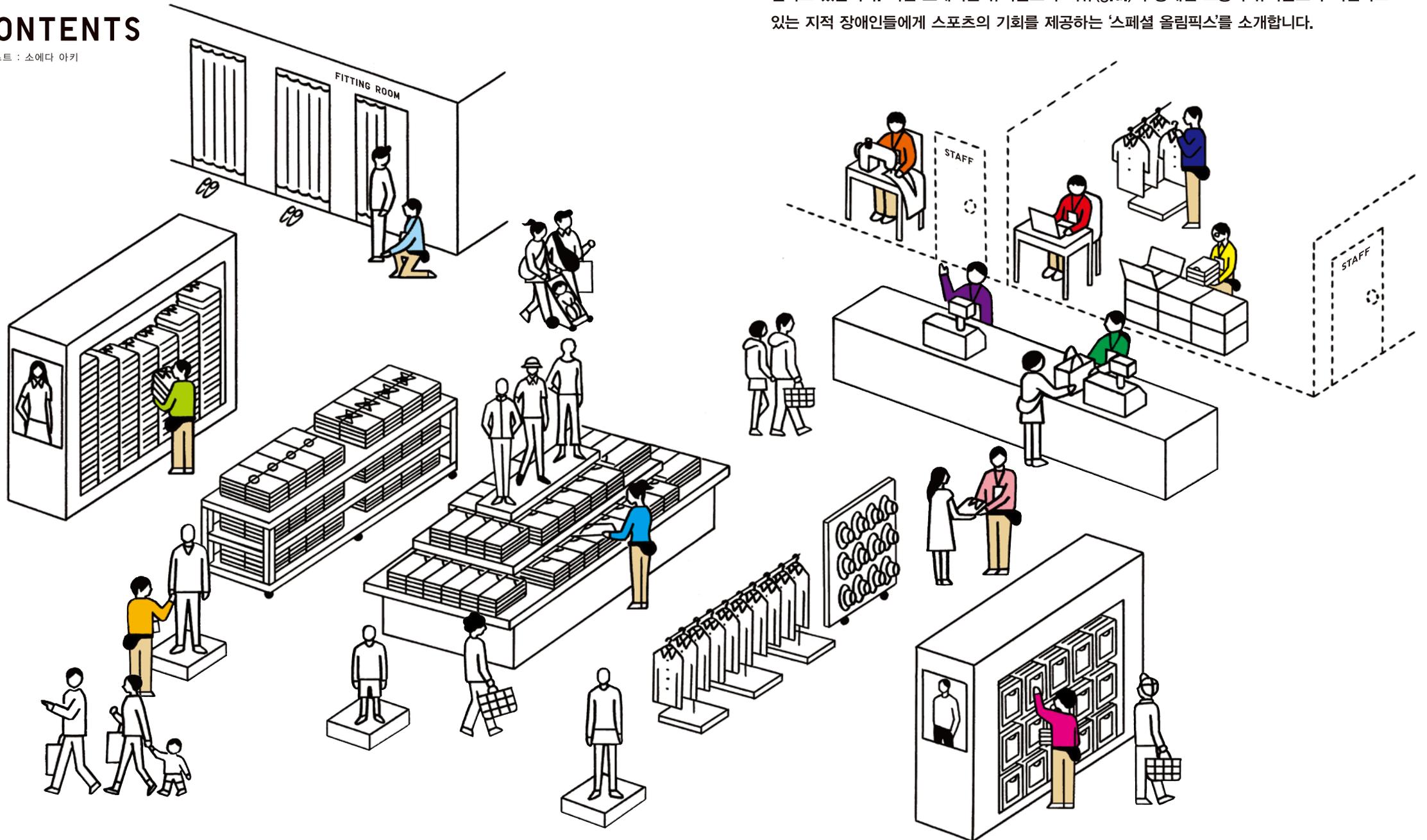
## CONTENTS

일러스트 : 소에다 아키

- 04 동료로서 일한다는 것
- 11 장애인 고용을 글로벌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 12 '스페셜 올림픽스'란?
- 14 스페셜 올림픽스 일본 동계전국대회 후쿠시마(福島)
- 15 FROM FAST RETAILING

# 장애인 고용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간다

유니클로의 매장에는 평소 고객의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트럭으로 운송되어온 대량의 상품을 포장상자로부터 꺼내는 일, 상품을 옷걸이에 걸고 사이즈 표시를 다는 일, 매장 내외의 청소작업. 이러한 일들을 모두가 분담하고 협력하여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연령과 개성이 서로 다른 직원도, 장애가 있는 직원도,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니클로와 지유(g.u.)의 장애인 고용과 유니클로가 지원하고 있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스포츠의 기회를 제공하는 '스페셜 올림픽스'를 소개합니다.





## 동료로서 일한다는 것

일본 국내의 유니클로에서는 2001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의 매장도 유니클로 이외의 그룹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전세계 매장에서 활약하는 직원의 모습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개성과 함께 일하는 것의 의미, 기업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유니클로는 현재 전세계 1,000 개를 넘는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849 매장으로 가장 많이 있고 해외에도 이미 11개국에 234개 매장(2012년 2월말 현재)이 있습니다. 매일 많은 고객이 매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본의 유니클로와 마찬가지로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가 하나가 되고 국가와 지역이라는 틀을 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저희 기업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

회에 있어서 좋은 기업'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유니클로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에 일본 국내와 해외의 구별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입각하여 유니클로는 전세계 어느 매장에서든 유니클로 종업원의 일원으로서 고객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 필요한 능력·인품을 갖추었는가를 기준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직원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장애인 고용 노력은 진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현지의 관련기관과도 연계하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터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완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더욱 글로벌한 시점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전세계에서 사회에게 필요한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 유니클로의 장애인 고용

일본의 유니클로 매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제·기준에서 장애인 고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 매장 직원의 채용기준과 고용형태

채용시에는 고객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 인품을 갖추고 있는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직원과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통근과 식사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근무시간 동안 무리 없이 근무할 수 있는지가 채용기준이 됩니다. 준사원으로 채용하며 휴가와 보험 등의 처우는 유니클로가 정한 규정에 준합니다.

### 고용형태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휴일은 시프트 근무
- 반기마다 계약 갱신, 근무시간 조정
- 사회보험, 고용보험 가입

### 주요 업무 내용

점장과 면담하여 개개인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담당합니다. 매장 내에 많은 종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일에 도전하거나 쉬운 일부터 어려운 일로 차츰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직원의 채용은 점장의 권한이며 직원을 키우는 책임도 점장에게 있습니다. 직원에게 일을 맡기는 데 있어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직장환경을 정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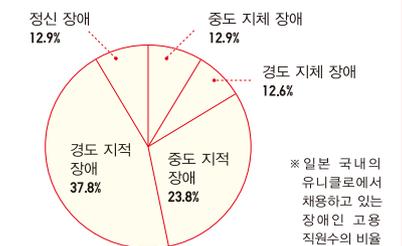
### 매장 업무의 예

- 상품 보충 준비
- 사이즈 표시 부착
- 상품 보정(밀단 줄이기)
- 물품 접수
- 고객 대응
- 상품의 진열, 보충, 정리
- 청소
- 매장 내 표시 부착

### 장애가 있는 직원이 활약할 수 있는 직장

유니클로는 직원 서로가 도우면서 일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수가 많고 회전율도 빠르기 때문에 매장에도 창고에도 많은 작업이 있으며 어떤 작업도 정확성, 스피드,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직원 모두가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작업 분담·적재적소의 배치를 하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직원도 자신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작업을 담당하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 직원의 장애 종류



### 대외기관·유니클로 본사와의 연계

전국의 지역장애인직업센터, 취업·생활지원센터, 공공직업안정소와 연계하고 직무시행법과 잡코치(Job Coach) 지원사업 등의 제도도 활용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본사는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의 집계·공유, 직장 실습의 조정, 개발활동 등을 하며 매장을 지원합니다.

###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사업의 전개·스피드에 맞추어 유니클로 이외의 그룹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해외 유니클로 매장에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 OSAKA

유니클로  
아베노 큐즈몰점

## 가와구치 히데토 씨

양손 3개 손가락(엄지 포함) 기능 장애

장애도 자신의 일부  
그렇게 인정함으로써 전진할 수 있었다

유니클로 아베노 큐즈몰 점이 있는 텐노지(天王寺), 아베노(阿倍野)는, 오사카의 상징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톨텐카쿠(通天閣)의 바로 옆, 정말 상업의 도시 오사카다운 활기 넘치는 거리다.

가와구치 히데토 씨는 작년 3월부터 이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양손 3개 손가락(엄지 포함) 기능 장애', 엄지, 검지, 중지 3개 손가락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훈련을 통해 일상적인 일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움직이는 데 엄청난 힘이 든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유니클로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영어 어학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문학교를 마친 21살 때에 영국으로 어학 연수를 갔다. 영국 사람들은 '장애는 당신의 개성이니까 자신을 가져라. 부끄러워할 것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 주었다. 장애가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면 피해도 소용 없다. 당당하게 맞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약 1년 반 전부터 수화 공부를 시작했다. '제가 걸로 보기에선 장애인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저의 장애를 알았을 때 깜짝 놀라는 반응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무서워요. 아마 청각장애인들도 같은 기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패럴림픽 등의 국제대회 현장에서는 영어와 수화가 모두 가능한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 그런 생각도 들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보자고 생각하고 있다. 매장에서는 창고 관리가 주된 일이며 상품의 보충과 진열을 위해 가게 앞에도 나온다. 특기인 영어로 안내를 하는 일도 간혹 있다. 장래에는 한 번쯤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도 유니클로에서 다양한 일을 배우고 기회를 잡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 TOKYO

유니클로  
아토레 아키하바라점

## 시라이 쿠니코 씨

청각 장애

프로급의 재봉 솜씨를 매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성지"

로서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아키바', 시라이 쿠니코 씨가 일하는 유니클로 아토레 아키하바라 1 점은 JR 아키하바라(秋葉原)역의 역사(驛舎)빌딩 안에 있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매장은 작지만, 고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특히 주말의 매장은 매우 붐벼서 보정(밀단 줄이기) 작업은 하루 종일 바쁘다. 시라이 씨는 청각 장애로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구화(입 모양을 읽는 것)와 필담이 중심이다.

시라이 씨의 취미는 재봉과 수예. 그녀의 딸은 3살 때부터 발레를 배워 고교 시절에는 콩쿠르에서 입선했을 정도. 의상을 바느질하는 것은 항상 시라이 씨, 그녀의 딸의 몸에 맞춰 몇 번이고 가봉을 하면서 완성해 간다. '엄마가 바느질해 준 의상 이외에는 입을 수 없다'라는 말이 늘 격려와 자극이 되었다. 이 매장은 여하튼 바쁘기 때문에 재봉 솜씨가 뛰어난 시라이 씨는 믿고 의지할 만한 인재다. 이 매장에서 일한 지 1년, 딸의 의상으로 단련된

재봉 솜씨가 지금 유니클로의 작업에서 마음껏 발휘되고 있다.

자신의 기술이 이제는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 TOKYO

지유(g.u.)  
게이오 하치오지점

## 카이다 테츠로 씨

지적 장애

옷이 너무 너무 좋다!

매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그룹 기업인 지유(g.u.)에도 있다. 지유(g.u.) 게이오(京王) 하치오지(八王子)점의 직원 카이다 테츠로 씨가 입사한 것은 2년 전. 옷을 좋아해서 패션 관계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동기다. '매장에 입고 갈 옷을

전날 밤에 모두 생각해 둡니다. 먼저 상의를 정하고 하의를 거기에 맞추고 마지막에는 양말로 액센트를 줍니다. 양말을 너무 좋아해서 매번 너무 많이 사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한테 혼이 납니다.'

오전 8시 15분에 출근하여 먼저 매장의 컴퓨터 전원을 켭니다. 청소를 하고 매장에 도착한 상품이 있으면 접수 작업. 상품을 비닐 봉투로부터 꺼내 옷걸이에 걸고 한꺼번에 선반에 얹어 가게 앞에 내 놓는다. 자기 할 일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령 있게 잘 가르친다'는 것이 카이다 씨에 대한 주위의 평가다.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매장의 청소와 상품 정리, 쓰레기 처리 등의 방법을 친절히 가르치고 자신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다른 직원의 일하는 모습을 확인한다.

이번 여름에 오사카에 여행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혼자 여행이다. 지유(g.u.) 최초의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인 지유(g.u.) 신사이바시(心齋橋)점을 보러 가는 것이 기대되어 매우 설레고 있다.





## 국가·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을 목표로

# SEOUL

유니클로 신림점 / 유니클로 용산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수도 서울.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도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한국 국내의 유니클로는 76개 매장(2012년 5월말 현재)에 달하고 그 중 22개 매장에서 40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매장 수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도 활약할 수 있는 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 한정범 씨

지적 장애

I love UNIQLO !

한정범씨가 유니클로 신림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월이다. 서울시의 남부, 지하철 2호선 옆의 쇼핑가가 있는 매장이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근한다. 매장에 도착한 상품을 포장상자로부터 꺼내고 방범 태그를 부착하고 옷걸이에 건다. 그 외에도 가게 앞에서 고객 안내도 한다. '주위의 직원도 친절하게 대해 줘서 힘든 일은 없습니다. 포장상자를 짊어지는 게 조금 무겁다는 것 정도.'

쉬는 날은 월급으로 산 '기동전자 건담\*1'의 프라모델을 조립하거나 집에서 'ONE PIECE \*2' 나

'NARUTO \*3'를 보기도 한다. K-POP 그룹 '소녀시대'의 팬이다. '유니클로의 옷은 멋있고 입으면 슬림하게 보여요. 아이 러브 유니클로예요.'

### 엄준필 씨

지적 장애

첫 월급으로 옷도 샀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일하는 것은 유니클로가 처음입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고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 INTERVIEW

FRL Korea CO., LTD. Co-CEO 안성수



장애인 고용을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일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종업원의 분위기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장애인들도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일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RL Korea CO., LTD. 하타세 사토시



'옷이 가진 힘으로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 간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글로벌한 브랜드로서 한국사회의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유니클로의 장애인 고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력도 있어서 채용 후의 이직자도 적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한국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유니클로 용산점의 직원 엄준필 씨는 한정범 씨와는 입사동기로 친구이기도 하다. 매장이 있는 용산은 도쿄의 아키하바라와 같은 전자상가로 유명하다. 외국의 대사관들도 늘어서 있어 이국 정취가 물씬 풍기는 거리다. 외국인 고객도 많다. '유니클로에서 일하면서 즐거운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객을 접할 때에는 CS(고객만족)가 중요하다는 것과 같은 서비스의

기본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교시절에 제 2외국어로 배운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어 공부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가게 앞에 나가서 상품 진열과 접객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고 의욕을 보인다.

한국에는 정부관련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조직이 있어 장애인 고용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에 장애인 인재를 소개하는 것 외에 채용 전의 연수와 채용 후의 후속 조치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는 유니클로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이 공단 서울지소의 김상구 씨는 '한국에서는 장애인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식이 강하고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니클로와 같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좋은 전례가 생겨서 저희의 일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고 말한다.

한국사회의 변화는 빠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부족한 상품을 보충하는 한정범 씨



접객에도 도전하고 싶다는 엄준필 씨



CSR 담당 조일훈 씨(오른쪽)는 직원들의 좋은 상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김상구 씨(사진 가운데) 등과 정기적인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 이제 막 시작된 장애인 고용을 지역사회와 함께 촉진

# SINGAPORE

유니클로 313@서머셋점

**모하메드 샤이후  
빈 사잇드 씨**  
지역 장애인

### 일하는 것이 정말 즐겁다

북위 1도, 거의 적도 바로 밑의 대도시 싱가포르. 유니클로 313@서머셋 점은 그 메인 스트리트인 오차드 로드와 접한 쇼핑몰 '313@서머셋'에 있다. 400평의 매장 면적을 가진 싱가포르 최초의 대형 매장이다.

'조례 시작합니다. 모두들 모여주세요.' 오픈 전의 매장 안에 모하메드 샤이후 빈 사잇드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것을 신호로 직원들이 계산대 앞에 정렬한다. 매장의 바쁜 하루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샤이후 씨가 유니클로에 응모한 동기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에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카페테리아에서 키친 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다. 동료들과의 일은 즐거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넓은 사회를 접해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여 유니클로의 일에 뛰어들었다.

매장에서는 주로 창고에서 상품을 포장상자로부터 꺼내 옷걸이에 걸거나 사이즈 표시를 부착하는 등의 일을 한다. '고객과 직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매우 즐겁다.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

'샤이후 씨는 일하는 것이 정말 빠릅니다. 사이즈 표시를 부착하는 스피드는 직원들 중 최고 수준. 매우 적극적이어서 일이 빨리 끝나면 "일할 거리 더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라는 점장 자넷 원 씨,

장래 희망을 물었더니 '더욱

공부해서 매니저가 되고 싶다'고 바로 대답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기 때문에 샤이후 씨라면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삶에도 틀림없이 도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INTERVIEW

UNIQLO (SINGAPORE) PTE. LTD.  
Co-CEO 알버트 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에 노력하고 있는 어패럴 기업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니클로는 사업을 전개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헌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여 더욱 좋은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UNIQLO (SINGAPORE) PTE. LTD.  
Co-CEO 오노구치 사토루



장애인과 함께 일함으로써 직원 사이에서 타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의 마음이 한층 더 강하게 의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본에서의 노력과 같습니다.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말뿐이 아니라 직원이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양쪽에서 꾸준히 계속해 가겠습니다.

UNIQLO JOURNAL

## 장애인 고용을 글로벌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글·다나카 노부히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맡겨버리면 장애인은 장애때문에 좀처럼 기업에 고용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거의 공통된 상황이다. 따라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일할 장소를 늘려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 왔다.

거기에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의 사고방식이 있다. 하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사회적 책임으로서 기업에게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본도 기본적으로는 이 방식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는 법률에서 '법정 고용률'을 지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이외에도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중국, 한국 등의 나라에서도 이러한 접근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또 하나의 사고방식은 개인의 평등,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장애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방식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생활의 모든 면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은 일반 고용과 같은 틀에서 생각되고 있다. 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배려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장애인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기업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배려를 했음에도 그 장애인이 회사의 이익이 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해 민간기업, 국가,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정해진 장애인 고용률 민간기업의 법정고용률의 모수는 '상용 고용노동자 + 단시간 노동자 × 0.5'로 하며 현재는 1.8%, 2013년 4월부터는 2.0%로 높아진다.

다나카 노부히코\_경제 저널리스트, 중국을 주요 분야로, HR(Human Resource) 영역에 정통. 기업의 중국사업에 대한 어드바이저를 맡고 있는 것 이외에도 잡지 등에 집필, 각종 세미나 등에서의 강연도 다수.

이것은 발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다. 전세계의 각각의 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기 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유효한가에 대한 판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유니클로의 장애인 고용은 법정 고용률인 1.8%를 크게 웃도는 7.19%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세계의 다른 장소에서는 유니클로와 다른 형태로 장애인 고용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현실에서는 2006년 12월 제61회 유엔총회에 있어서 장애인권리조약이 채택되었던 것처럼 세계는, 그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자립의 존중, 인간의 다양성, 차이의 존중, 인간성의 일부로서의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용, 기회의 평등 등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전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누구나가 인정해 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 그것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이며 전세계의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환영받는 기업의 조건이다.

그것을 위한 접근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도 좋다. 지향해야 할 방향만 틀리지 않다면 도착할 지점은 반드시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스페셜 올림픽스’란?

스페셜 올림픽스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스포츠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적 스포츠 조직입니다. 대회 외에도 연중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계 각지에서 전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사회에 참가하는 것, 또한 자원봉사자와 지역민들과 교류하고 장애의 유무를 넘어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대회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꿈의 무대!

평소 연습의 성과를 발휘하는 대회는 하계대회와 동계대회가 있으며 4년에 한 번 국내대회와 세계대회가 각각 개최됩니다. 다음 대회는 2013년 한국에서 동계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Special Olympics Nippon

## 일본 국내의 활동을 추진하는 ‘스페셜 올림픽스 일본’

스페셜 올림픽스의 국제본부는 미국에 있으며 일본 국내의 활동은 국제본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스페셜 올림픽스 일본’이 추진. 여자 마라톤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리모리 유코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니클로에서는 2002년부터 스페셜 올림픽스 일본의 공식 파트너로서 국내외 대회에 있어서의 유니폼의 기증과 종업원 자원봉사자 참가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pecial Olympics**  
**Nippon**



## 선수 전원이 시상대에!

대회에 출전하여 평소 연습의 성과를 발휘한 모든 선수를 기리기 위해 전원이 시상됩니다. 금, 은, 동메달에다가 8위까지 리본이 있으며 시상대도 최대 8단! 순서대로 전원이 시상대에 올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메달과 리본을 받습니다. 실격한 경우에도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Special Olympics Nippon

## ‘선수’의 참가자격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일상적인 프로그램은 6세 이상. 대회는 8세 이상이면 ‘선수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페셜 올림픽스의 조직은 세계 175개국에 퍼져 있으며 선수의 수는 약 370만 명에 이릅니다.



## 스페셜 올림픽스에만 있는 오리지널 경기도 있는가?

동계대회의 ‘플로어 하키’는 스페셜 올림픽스 오리지널 경기입니다. 눈이 오지 않는 나라와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아이스링크가 아닌 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욕이 있으면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회 때 대회장 정비, 선수와 관객 유도, 도구 운반, 응원 등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경기 경험이 없더라도 스포츠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특기를 살려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유니폼의 힘

유니클로는, 세계대회에서는 일본 선수단에게, 국내 대회에서는 자원봉사자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유니폼을 입음으로써 일체감과 단결력이 생깁니다. 유니폼에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 Special Olympics Nippon



# 대회 개최를 복구의 힘으로 스페셜 올림픽스 일본 동계전국대회 후쿠시마(福島)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2년 2월 동계전국대회가 후쿠시마(福島)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대회에 담긴 생각들과 함께 소개합니다.

‘대회 개최를 복구의 이정표로 만들자.’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1개월, 대회준비 재개를 향해 처음 일어난 것은 후쿠시마(福島) 실행위원회의 멤버들이었습니다. 멤버들 자신도 피해를 입고 준비는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다시 시작. 시설은 정비할 수 있어도 사람들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이 땅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회장을 정비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고 마침내 맞이한 개최 당일. 대회를 마음속으로 기다렸던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약 4,000명이 전국으로부터 후쿠시마(福島)에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미야기(宮城)현의 유니클로 미나미요시나리(南吉成)점에서 일하는 나카무라 미호 선수(사진a)도 대회를 기다려 왔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대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줘요. 그것이 가장 기뻐요.’

자원봉사에는 개최지 후쿠시마(福島)에서도 약 1,4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모리타 켄이치 씨(사진b 왼쪽)는 지진 피해를 입은 고향을 보고 자신에게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돕고 싶다는 마음에 참가. 대회장소에 올 수 없었던 동료와 가족의 뒤통까지, 마음을 담아 선수들을 응원하였다. 하타 타츠야 씨(사진c)는 지역의 이벤트에는 항상 불려 다니는 인기인. “자원봉사자”

라는 특별한 느낌이 아니라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다. 그런 것이 이 지역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층 더 커다란 환성에 둘러싸인 시상식. 스페셜 올림픽스 일본 이사장 아리모리 유코 씨(사진d)는 대회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지진 피해에 굴하지 않고 개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후쿠시마 사람들의 뜨거운 정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단결력이 태어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구를 위한 염원을 ‘대회’라는 형식으로 모두의 힘으로 이루어 낸 이번 대회. 여기서부터 태어나는 용기와 희망이 다음을 향한 걸음을 내딛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FROM FAST RETAILING

### 전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유니클로의 장애인 고용률은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2001년의 시점에서는 1.27%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가 있는 직원이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는 예상을 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청각 장애가 있는 직원이 일하는 오키나와(沖縄)·나하(那覇)의 매장에서는 본인의 장애로 인해서 그 직원은 누구보다 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장애가 있는 동료가 무언가 곤란함을 느끼는 게 없는지 항상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세는 고객에 대해서도 실제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거쳐 모든 매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유니클로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종업원이 같은 팀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는 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니클로에는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장애의 내용과 능력에 따라서 보람 있는 일을 찾아내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장 이하, 직원 전원이 그것을 지원해 가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개인, 기업,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글로벌한 시점에서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이것이 패스트 리테일링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세계의 어디에서도,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고 일이 즐겁다고 느낄 수 있는 기업을 목표로 계속하여 도전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세계에서 사람들로부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옷의 힘’에서 이제까지 다루었던 테마

- vol.1 장애인과 함께 일한다는 것(오른쪽 : 표지 사진)
- vol.2 HEATTECH가 탄생되는 장소
- vol.3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
- vol.4 세토우치 올리브 기금과 유니클로
- vol.5 소셜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 vol.6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옷’을
- vol.7 일본에서, 세계에서, 옷이 할 수 있는 일
- vol.8 소셜 비즈니스의 미래



Vol.01 장애인과 함께 일한다는 것

‘옷의 힘’은 유니클로 매장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품질시 배부 종료) 아래의 웹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uniqlo.com/kr/csr](http://www.uniqlo.com/kr/csr)